산림부문의 세계화 도전

마티 팔로 / 서울대학교 교수

마티 팔로 교수는 핀란드 사람으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에서 강의를 맡은 분으로 지난 9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산림포럼 창립 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한 영문 내용을 번역하여 여기에 싣습니다. …… 편집실

1. 세계화 개념

세계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되고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 등에서 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인간 활동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화는 많은 비판자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세계화 정도가 높았다고 지적하는 1914년의 상황과는 여러면에서 다르며 어느 나라도 세계화의 영향-기회와 위협-을 피해 갈 수 없는 데 산림부문에서 세계화가 한국과 핀란드에 어떻게 도전시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독립국가는 190개국으로 1914년에는 독립국가 수가 그 절반 이하였고 또한 지금 우리들은 그 당시와는 규모가 다른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191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정부간국제기구와 다국제적 매체는 물론 수많은 정부간 다른 기구들과 함께 UN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주역들은 통신비용을 저렴하게 한 선진정보기술을 응용하고 있으나 1914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또한 오늘날의 수송비는 그 당시 수송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오늘 날 은행과 다른 금융 메카니즘이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1914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국제적 수단으로서 그 지배력을 확장했고 이에 따라 현대의 세계화는 과거에는 유례가 없던 우리 시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 세계 산림 문제

세계산림자원은 수세기에 걸쳐 감소 일로에 있고 아직도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과 대략 모든 아시아국가를 포함한 119개국에서 1인당 산림면적은 1ha미만으로 이러한 결과는 산림제품과 서비스의 국내공급에서 경제적인 부족을 보이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및 한국은 최대의 임산물 순수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산림 면적은 지구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열대지방에 35%가 분포하나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토 면적의 67%가 산림이고 중국은 14%가 산림입니다. 이러한 산림 점유는 산림의 환경적 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최근에 많은 환경적 재해를 경험했으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의 국제적 경향은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림 점유가 낮았으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이 규칙의 예외로서 1㎢당 471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덮여있어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기본 인자들을 가지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임으로 본인은 한국의 임업공무원, 산림소유자 및 전 국민에게 이러한 위업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열대 산림이 감소 일변도에 있는 반면 나 자신의 나라인 핀란드와 유럽의 나머지 국가에서의 산림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증가해 왔는데 산림자원 증가의 기본 인자들 가운데에는 강력하고 명확한 재산권, 산림의 개인소유 확대, 선진 민주주의, 낮은 부패, 작은 정부와 시장 실패, 고소득, 도시화, 산림 및 농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산림 벌채 및 산림 퇴화로부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산림생태경영)이나 일종의 탈공업화 임업으로의 전환방법은 현대 세계 산림 정치의 가장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또한 각각의 인자들이 전후 거의 황폐화된 산림 상태에서 현재의 높은 산림 식생을 훌륭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의 전통적 문화 역시 묘지와 사찰의 위치 및 식목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나무와 산림의 진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산림벌채로부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의 전환이 요원한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중국이나 캐나다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구상의 어느 사회주의 임업국도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최근에 발간된 '세계산림, 시장과 정책' 이란 책자에서의 결론은 시장과 정책의 최고 혼합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산림정책의 세계화

UN은 1972년 스톡홀롬에서 환경회의를 조직했고 그 이후 환경의 비정부기구들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그린피스가 대략 그때 설립되어 캐나다의 밴쿠버에 겨우 사무실 하나에 직원 2명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7백만명 이상의 회원에다 전세계에 걸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공군과 해군 그리고 금융 선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시 다른 강력한 비정부기구들도 국제적 정보 교환과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 연합 형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기술 기계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지구의 벗들과 그리고 다른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정부, 정부간기구 및 거대 기업체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으며 비정부기구와 매체간의 공생관계로도 성장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은 매체에 자주 그리고 중요한 때에 출연되지 않으면 단지 한계력 밖에 갖지 못함으로 이들 비정부기구들은 정부, 정부간기구 또는 기업 전략과 활동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매체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정부기구들은 매체를 위해 시청자를 더 많이 늘려주고 수입을 가져오게 하며 대중성을 가진 매체는 정부기구들에 더욱 많은 지지자와 재정적 지원을 가져오게 하여 상호공생관계를 강화시키고 탈공업화 임업을 향한 국가와 기업의 강력한 추진체가 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1980년에 열대천연림이 연간 11백만ha가 벌채된다고 평가했고 2000년에는 14백만ha가 벌채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1980년 벌채 평가 소식이 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의하여 발표된 후 20년 동안 비정부기구들이 수집한 가장 활동적인 국제 산림 정치 가운데에서 벌채의 감소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제열대목재기구가 1984년에 처음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자원연구소(비정부기구)가 열대임업 행동계획을 수립했는데 세계은행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참여했으며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UN환경개발회의는 벌채 점검을 위한 산림원칙과 3개 국제환경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11장의 아젠다 21을 채택했고, 나중에 정부간 산림 패널, 정부간 산림 포럼 및 유엔 산림 포럼 등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볼 수 없었으므로 국제정치에서 벌채는 중단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대산림은 주로 국가소유이고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패는 산림의 낮은 가치는 물론 정부와 시장실패를 지지하고 이러한 결과로 벌채가 계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국가 정부 회원국들은 종종 벌채권 소유자, 군인 및 벌채로부터 오는 부패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벌채를 감소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나라보다 산림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북한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인자들이 모두 작동할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빈곤을 줄이는 하나의 열쇠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기구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신규 조림과 재조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 산림공업의 세계화

임산기업체들의 세계화는 불과 10년 사이에 급속한 신장을 해왔고 미국 임산기업체들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에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핀란드 업체들은 불과 10년 뒤에야 해외 직접투자를 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최대 10개 임산기업체들 가운데 미국에서 온 업체가 4개회사이고 2개회사는 일본에서 진출한 것으로 이들 두 나라가 임산물의 최대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확장하기 용이할 때 진출했으므로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조국 핀란드에서는 10개 회사가운데 '스토라 앤소와 유피엠-키메네'가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아일랜드 양국이 이러한 순위 목록에 한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3개의 작은 나라에다 국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게 한 층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 회사가 최소한 3개 대륙에서 생산시설을 가질 때 세계적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생산시설의 계획범위가 대륙간으로 확대되고 점차 세계적으로 뻗어 나갑니다.

세계적인 기업체는 규모 경제의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균형 잡힌 화폐변동, 목재수입 또는 산림소유에 있어 더욱 많은 지리적 선택권과 같은 세계적 범주로부터 생기는 다른 수익도 가질 수 있으며 힘이 강력한 회사는 세금과 보조정책 그리고 신규 대형투자 장소 선정과 본부의 재배치 등에서 개별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업과 일차 가공업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핀란드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아카시아 조림지는 물론 우루과이와 브라질에 수익 높은 유칼립투스의 조림지를 조성하였고 새로운 거대 펄프공장을 브라질에 건설중이고 3개의 종이공장이 중국에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일본회사 오조는 주로 호주에 속성수 50만ha를 조성하였고 일본은 목재공업에서 1억㎥의 목재를 소비하고 있으나 이 수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단지 20%만이 일본 산림에서 벌채하고 있는 데, 일본에서의 입목 가격은 1960년이래 하락하여 왔으나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의 사유림 소유자는 수입원이 되어 온 많은 사회주의 산림국가로부터 불공정한 목재의 덤핑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증가일로의 목재 수입과 함께 수익성 없는 임업을 향해 들어오는 동일한 위험 부담에 대처할 책임이 있고 또한 두 나라는 UN산림포럼과 세계무역기구에서 이런 추세에 대항하여 싸울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위도상으로 아이슬란드와 함께 매우 높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고기를 잡고 가공한 반면 핀란드에서는 나무를 기르고 가공해 왔습니다만 이들 제품을 가지고 두 나라는 국제 무역에 참가하여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수준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산림면적의 0.5%를 가지고 있으나 세계 인쇄 및 필기 용지 판매량의 25%와 임산물 판매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노키아와 다른 전자회사들이 세계시장에 침투하여 전체 상품 수출액 점유율에서 임산물의 2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핀란드의 산림부문은 그의 정책 및 임산공업의 세계화 때문에 퇴출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체들은 더 이상 국내목재공급에 의존하거나 국내투자나 금융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의 비정부기구들은 또한 핀란드 임업을 공업시대로부터 탈공화시대로 전환하도록 세찬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산림자원은 오늘날 21억㎥으로 평가되어 1800년의 축적수준과 같게 추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림법이 리오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정의를 반영하면서 1997년에 채택되었으며 또한 새 국가 산림계획 2010이 1998년에 매우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립되었고 모든 산림은 최근에 범유럽산림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핀란드 역사에서 산림정책이 보다 더 수사학적이고 활동성을 보여 핀란드의 추진력을 물을지 모르겠으나 이는 시민들이 탈공업화 가치보다는 오히려 비정부기구와 매체의 유익한 공생관계를 추구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정부기구가 매체 출현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세계화 영향은 핀란드와는 다른데 한국은 주요 순목재 수입국이고 핀란드는 주요 순수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증가일로에 있는 과학자, 임업공무원, 기업가 및 사업가간의 교신과 교환은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가 달리 갑니다만 결국 우리들의 나라는 거의 이웃이고 두 나라는 두 개의 대국 사이에 유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들 국민간의 정치적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윤여창 교수와 한국 핀란드 코스타리카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진전에 관한 상당한 연구를 했으며 산림부문에 대한 많은 기회와 위협들이 세계화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기에 이들은 하나의 추가적이고 정확한 공동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